

미래교육,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사기간 2021.2.15. ~ 2.19.

조사대상 경상남도 유,초,중,고 교사
(무선표집 120개교 대상)



2021-1호 (통권 8호)

이슈+생각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작년 한 해 교육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의 부담 속에서 또 다른 1년을 준비하는 지금, 미래교육에 대해 경상남도 교원들이 가지는 느낌과 생각을 설문을 통해 조사해보았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18.5%가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된다', 30.5%가 '조금 기대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두렵거나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응답도 11% 있었습니다.
- "물리적인 학교의 공간과 기능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미래에도 학교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나 경상남도 교원들은 학교의 중요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의 필요성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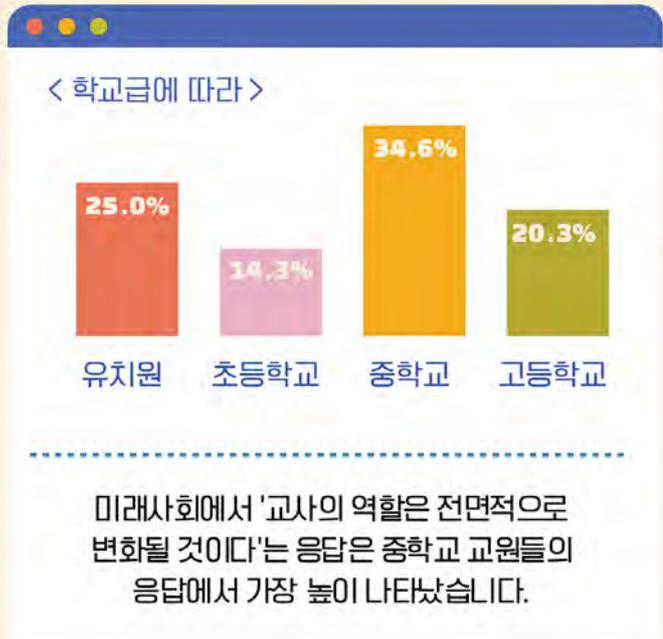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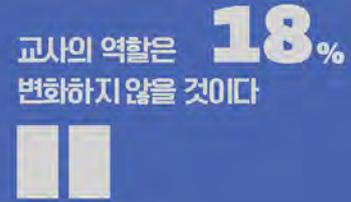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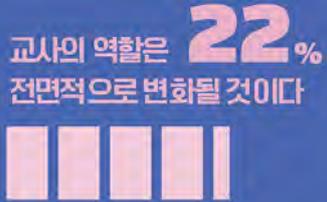
발행일 | 2021.2.28.

발행인 | 이영주

문의 | 055-269-0765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https://gerii.gne.go.kr>

미래에 교사의 역할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은?



Made in Wordcloud.kr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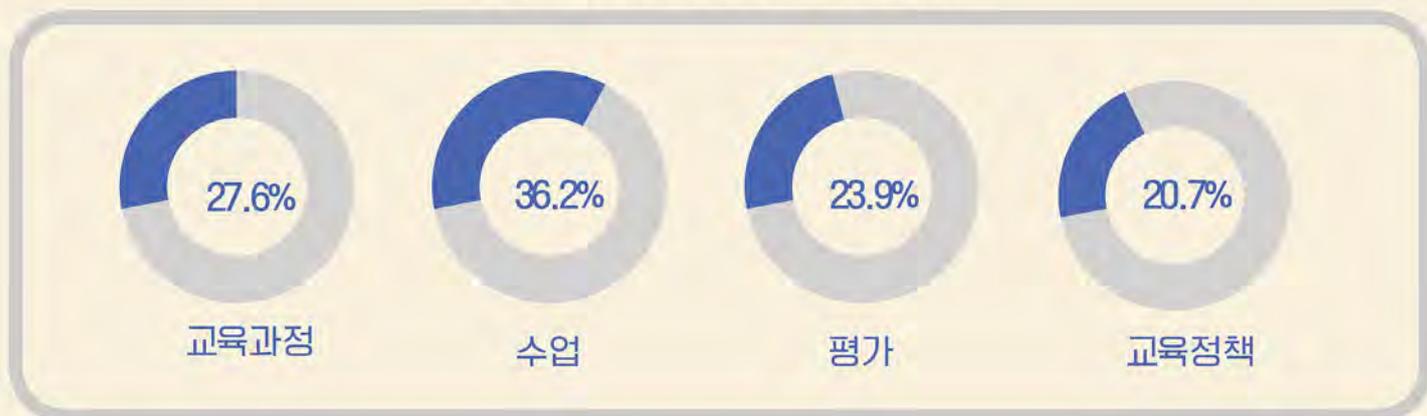


Made in Wordcloud.kr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 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은 연 4회(2월, 6월, 9월 12월) 이슈페이퍼 '경남교육정책 지금'과 함께 발행됩니다.

현재의 교육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4점 이상)



학교급별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2점 이하)



미래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미래역량 (업무별 1~3순위)

전체교원

- ① 도덕성
- ② 의사소통능력
- ③ 공감능력

관리자

- ① 협업능력
- ② 의사소통능력
- ③ 공감능력

업무담당

- ① 협업능력
- ② 도덕성
- ③ 문제해결능력

보직교사

- ① 의사소통능력
- ② 도덕성
- ③ 공감능력

경남교육정책 **지극**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발행인 이영주

발행일 2021. 2. 26.

“미래교육에 대한 교원 인식”

이 희 진(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01 들어가며...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긴급성을 띤 것은 ‘알파고 쇼크’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발표가 많은 이목을 끈 가운데 같은 해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승부에서 이세돌 9단이 패배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목도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불안감이 대두되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보다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교육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의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교육계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를 직접 수행하고 실천할 교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었으며 따라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나지연·장병기, 2017;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2016; 임상훈·조미현, 2016; 임상훈·조미현, 2016 등).

그러나 점진적으로 노력해가던 미래교육은 갑자기 현실로 닥쳐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기반이 되는 원격학습이 일반화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2021학년도가 시작되는 지금, 미래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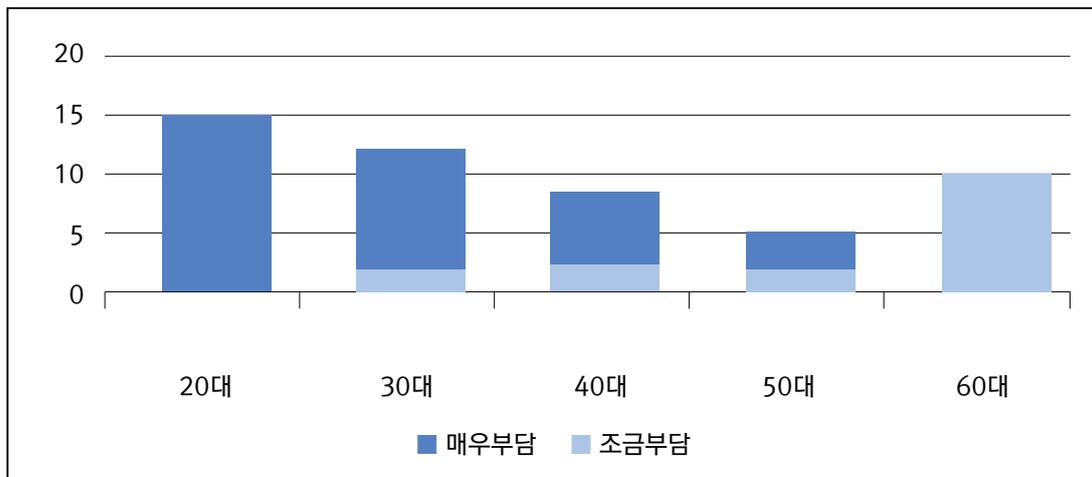
미래교육에 대한 경상남도 교원들의 인식

미래교육에 대한 경상남도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내 18개 지역마다 유, 초, 중, 고등학교를 2개 이상 포함하는 원칙에 따라 120개교를 무선표집하였으며 서술형 문항을 포함한 20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가.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부담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18.5%가 ‘매우 긍정적’, 30.5%가 ‘조금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두렵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9%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교원에게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으나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는 ‘매우 두렵거나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60대 교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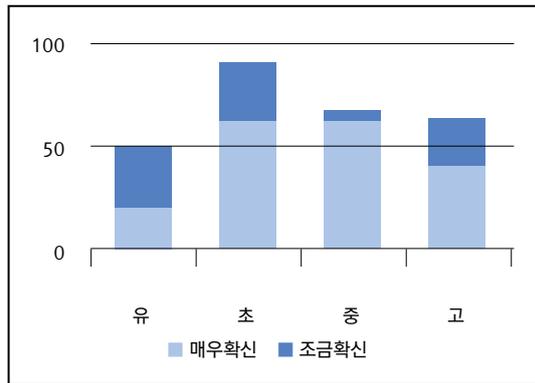
원격수업이 일반화되면서 교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요구받았다. 때문에 고연령층의 교원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초기부터 우려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에서 5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미래사회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좀 더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교직 사회 진입 초기의 20대 교원들과 정년을 앞둔 60대 교원들이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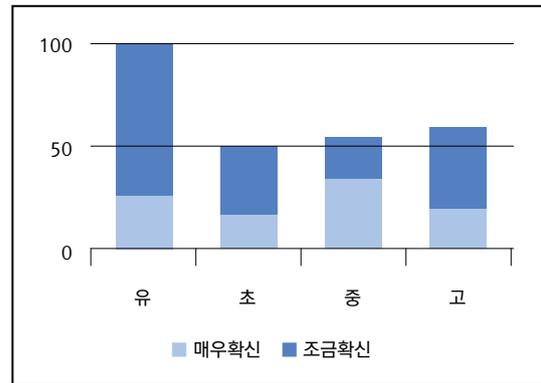
[그림 1]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교원들의 연령대별 부담감 수준(단위: %)

나. 미래 사회에서 학교 및 교사의 역할

- “물리적인 학교의 공간과 기능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5%가 미래에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교육활동이 일상이 되었음에도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교원들이 높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미래에도 학교 공간이 존재할 것이라는 학교급별 교원의 예상(단위: %)



[그림 3] 미래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학교급별 교원의 예상(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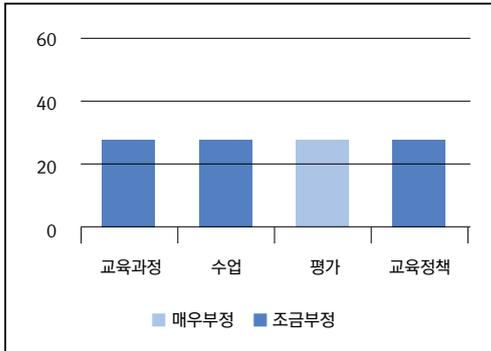
“미래 사회에 교사의 역할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원들이 가장 동의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들에게서 동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래사회에도 학교 공간이 물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역시 초등학교 교원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과 관련지어 해석해보면 초등교육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견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미래 직업에 대해 예상한 옥스포드 대학의 미래 보고서(Carl Benedikt Frey & Michael A. Osborne, 2013)에서 많은 직업들이 20년 안에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거나 초등교사, 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등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결과와 같은 맥락의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관행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시사하고 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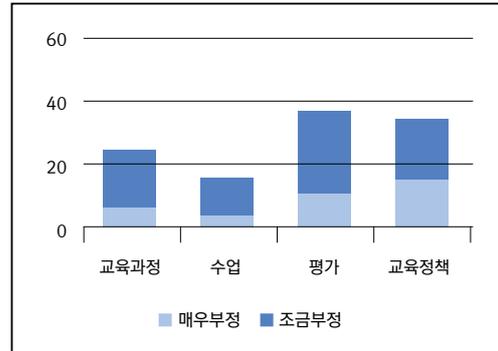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경상남도 교원 인식

교육과정, 수업, 평가, 교육정책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사회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은 교육과정과 수업 영역의 대응보다 평가와 교육정책 영역의 대응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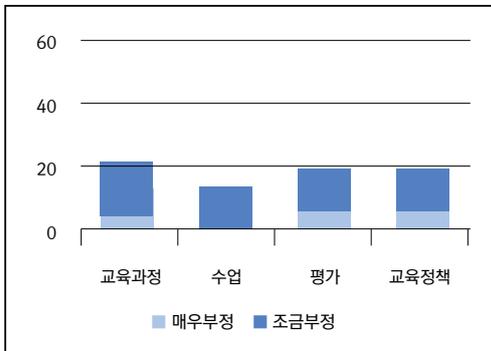
그리고 전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원의 평가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시 중심 교육과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고교학점제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2016)의 연구에서도 평가 영역이 가장 변화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평가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 구속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하며 교육과정이나 평가도 학교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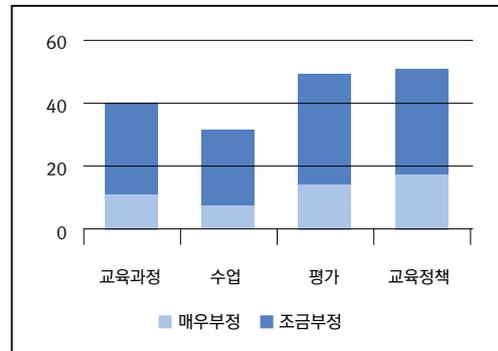
[그림 4]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유치원 교원 인식(단위: %)



[그림 5]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초등학교 교원 인식(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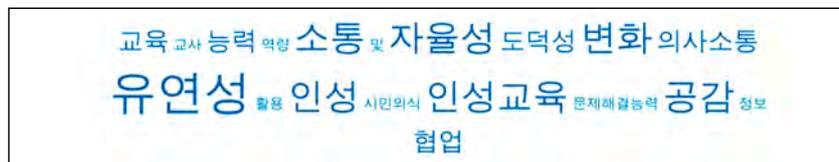


[그림 6]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중학교 교원 인식(단위: %)



[그림 7]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고등학교 교원 인식(단위: %)

그렇다면, 미래사회에 교육이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경상남도 교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키워드화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유연성(6.12%)과 공감(5.1%), 소통(5.1%), 자율성(5.1%), 변화(5.1%) 등이었다. 공감과 소통이 많이 언급된 것은 “미래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과 궤를 함께 한다. 교원들은 미래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1순위 도덕성, 2순위 의사소통능력, 3순위 공감능력을 꼽았다. 과거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¹⁾.



[그림 8]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교원 의견 워드 클라우드

더불어 미래사회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원들은 ‘상담’, ‘코칭’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사는 ‘안내자’, ‘조력자’, ‘상담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송신철·심규철

1)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2016)의 연구에서 교원들은 미래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공감(도덕성)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 등의 순으로 답했다.

(2017) 역시 미래사회에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로봇교사가 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감하는 정서적인 면이 교사들에게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나지연·장병기(2017)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탐구 조력, 동기 부여 및 흥미 유발 등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 상담가 **인성교육** 지원 안내자 **보다** 및 **돌봄 인성** 사회성
조력자 상담자 상담 **더** 역할 **보육** **코칭** 중심 **지도** 교육

[그림 9] 미래사회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원 의견 워드 클라우드

같은 맥락에서 경남 교원들은 “(시험 성적을 제외하고)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 존중을 위한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상대평가 폐지”, “대학입시에서 탈출”, “교사 양성과정의 변화”, “교사 재교육제도” 마련, “교육과정 및 교사의 자율성”, “학급당 인원수 감축과 교사 정원 확대”, “인프라의 다양한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하였다.

04 나가며

미래교육에 대한 교원 인식은 2016~2017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과 유사했다. 인공지능의 도래로 사회 전체가 본질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활동은 사라지거나 로봇이 대체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교사는 안내하고 지원하는 조력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상남도 교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 양성 과정과 학교 지원 체제의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로 하여금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문가로 성장하고 교육활동을 실천하게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포용성과 그에 따라 교육과정과 평가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유연성은 교육청 등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각 주체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것, 즉 학생과 교원, 공동체마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참고문헌

- 나지연·장병기(2017). 미래 과학교육에 대한 예비 초등 교사들의 인식. **초등과학교육**, 36(1), 85-94.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2016). 이슈페이퍼-미래교육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송신철·심규철(2017).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에 대한 예비 과학 교사들의 인식 조사. **생물교육**, 45(3), 404-417.
 임상훈·조미현(2016). 미래교육을 대비한 정보관련 정책들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 121-130.
 Carl Benedikt Frey&Michael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Oxford University.